

# 순천만 흑두루미, 20년새 46배 증가

### 올해 9800여마리 찾아와 월동 전 세계 개체수의 60% 달해 전북대 뽑기 등 서식환경 개선

겨울을 나기 위해 순천만을 찾아 날아든 흑두루미 개체수가 20년 사이 4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도래 흑두루미는 지난 2002년 121마리에서 2009년 450마리, 2022년 5582 마리로 순천을 찾는 두루미 개체수가 20년 사이 46배 늘었다.

올해는 지난 21일 기준 9800여 마리가 관찰되면서 작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수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일본으로 갔던 흑두루미 개체군이 AI를 피해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환경부와 함께 보호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흑두루미는 AI 등 살아갈 안전한 터전을 찾는 등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순천만 흑두루미는 지난 1999년 순천시가 본격적으로 두루미 개체수를 관찰하기 시작한 이래, 2002년 한 해만 빼고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 1000마리를 넘기면서 천학의 도시라는 꿈을 이뤘으며,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00마리 이상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원두루미, 캐나다두루미까지 총 다섯 종의 두루미가 확인된다.



지난 24일 순천만을 찾은 김승희 영상강유역환경청장이 흑두루미 관찰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이 가운데 세 종의 두루미가 2급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순천시는 2009년부터 전북대 282개를 뽑고 습지 복원, 친환경 흑두루미 희망 농업 단지 운영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새들의 월동지 만들기엔 힘을 기울였다.

세계 생존 개체수가 1만7000여 마리로 추정되는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5000마리 이상 관찰되는 것은 그만큼 순천의 갯벌과 동물 쉼터가 환경적 요인에서도 탁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순천만에서도 AI에 따른 흑두루미 사체가 발견되고 있어서 관계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AI를 피해 안전한 순천만으로 피난 오면서 개체수가 늘

고 보호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위험요인도 없지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흑두루미가 순천으로 역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절실해지고 있다.

시는 2009년 450마리였던 흑두루미가 올해 9800여 마리로 늘어나는 등 순천의 노력으로 전세계 흑두루미의 보고로 떠오르자, 더욱더 세계적인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순천을 방문한 김승희 영상강유역환경청장에게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생태계보호지구내 전신주 제거 확대, 친환경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확대,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 확대 내용을 담았다.

/순천=김은정 기자 ejkim@kwangju.co.kr

# 화순군 '월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2026년까지 매년 100가구씩

화순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만원임대주택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입주자는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는 방식이다.

화순군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만원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하고 최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를 통한 인구유입을 꾀하자는 취지다.

화순군은 올해 말까지 (주)부영주택과 만원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무리 짓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00가구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주 대상자는 만 18~49세 청년, 입주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한 49세 미만 신혼부부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저소득층을 우선 입주시킬 계획이며 최종 입주대상자는 설문조사와 수요조사 등 여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화순군은 해당 가구의 보증금(4500만원대)을 부담하고 입주자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관리비는 별도다.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보증금과 월 6만~7만원대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화순군은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특별회계를 통해 만원임대주택사업 재원 52억5000여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만원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보호대상 종로 아동의 사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정책 발굴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편의시설로 재탄생

### 공원 의자·안내판으로 제작 설치

담양군 고서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재탄생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고서 지방도확포장공사로 부득이 하게 베어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부산물을 활용하여 의자, 안내판 등으로 제작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 도시숲 등에 무료로 배부했다.

고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1980년대 조경 조성 위해 식재된 것으로 군민과 40년을 함께 동거동락 했으나 최근 전라남도의 지방도 887호선 확포장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거됐다.

이에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를 다시 지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부산물을 의자 등 편의시설물로 가공하여 지난 22일 읍면에 배부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부산물로 제작된 벤치.

군 관계자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제거된 상황은 안타깝지만 편의시설로 제작하여 다시 지역민의 곁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특색 있는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입지 광양 확정

### 태인동 시유지에 286억 들여 건립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부지가 광양으로 확정됐다.

광양시는 광양만권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로 광양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부지는 태인동 1805번지 일원 시유지(3만 2995㎡)로 국비 286억 원이 투입되며 강의 실과 강당, 사무실, 기숙사 등 연수시설을 포함해 컨벤션, 체육시설 등의 지원시설로 구성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 연수원 유치 이후 연수원의 추진방향에 맞는 광양만권 지역의 환경·문화적 인프라 활용과 '전국단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

적의 부지를 찾기 위해, 부지 추천, 지속적인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룬 결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는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실제 개공을 시작으로 2027년 연수원이 완공되면 철강, 석유화학, 우주항공, 방위산업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 산업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4차 산업 혁명에 큰 역할을 담당할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타 지역 연수원은 원거리로 접근성이 낮고 일반적인 교육 위주였으나, 광양만권 중심으로 밀집된 제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 현장 맞춤형 특화 전문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함평군, 21기 은빛건강대학 수료식 성료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마련된 함평군 은빛건강대학이 수료식을 가졌다.

함평군은 지난 24일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에서 '제21기 은빛건강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제21기 수료생 60명과 가족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수료식은 졸업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표창장·수료증 수여, 축하, 시낭송, 색소폰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6월 개강한 제21기 은빛건강대학은 20주

간 건강, 교양, 악기연주, 시 쓰기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대학 과정을 통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모든 과정을 건강하게 수료하시고 명예로운 학사모를 쓰신 어르신들 모두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은빛건강대학은 어르신들에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1년 개강 이래 16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완도 친환경 파래

## 국내 첫 유기수산물 인증

완도 파래가 국내 최초 유기수산물로 인증받았다.

완도군은 노화읍 서리의 친환경 파래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증 취득한 파래는 14개 어가이며, 14개 어가의 파래 재배 면적은 총 459ha다.

유기수산물 인증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 양식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를 한 후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전국 최초로 받은 파래에 대한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수질, 방사능, 중금속 등 성분 검사와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위한 위생·기록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이룬 쾌거다.

인증 취득으로 완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